

LG, 냉장고 코팅 · 난연제 사용감축

냉장고 유해물질 사용 최소화 ... 유럽 RoHS 기준 충족 친환경제품

LG전자가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냉장고로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국내 및 유럽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친환경제품 개발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기준을 적용해 각종 코팅제, 케이블류, 배관접합부, 난연제 등에 함유돼 있는 일부 유해 화학물질을 환경적으로 무해한 물질로 대체 또는 제거한 신제품 <싱싱냉장고 앞뒤냉각>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2월 발효돼 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 강제 시행될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RoHS>은 전기·전자제품에서 특정 유해물질인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및 브롬계 난연제(PBB 및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EU 가입국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며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대한 규제 WEEE(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제품 환경규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LG전자 냉장고 사업부 박영일 상무는 “최근 잇달아 시행되는 선진국의 환경관련 규제로 친환경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며, LG전자가 친환경제품 개발의 선두주자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01>